

해외전시회 소식

■ 중앙아시아 국제섬유기계전시회 개최

2021년 중앙아시아 국제섬유기계전시회 (CAITME 2021)가 오는 10월 6일에서 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엑스포 센터 전시장에서 3일간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중앙아시아의 교통 요충지인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어 인접 국가인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의 시장 개척에 효과적인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앞서 개최된 CAITME 2019는 전시 면적 12,500㎡, 참가국 24개국, 참가 업체 280개사, 관람객 7,500명이 참관하여 우수한 수출 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2019년에 참가한 한국 업체는 (주)이화에스알씨, 부광테크, (주)월드로, (주)삼화기계, (주)니텍스제침, KTM 등 7개사이다.

(전시회 홈페이지 : www.caitme.uz/en)



무역 및 시장정보

■ 섬유기계 수·출입 통계 (2021년 1월 ~5월)

		수 출	수 입
금액 (천\$)		830,255	486,096
국 가 별 (천\$)	중 국	37,229	269,113
	미 국	441,349	7,183
	일 본	6,682	16,348
	베트남	57,005	99,204
	유럽(계)	54,343	39,721

■ 파키스탄 경제동향 리포트

(가) 국가개요

- 면적 : 7,961만ha (대한민국의 약 7.9배)
- 인구 : 2억 2,519만명 (2021년)

(나) 경제지표

- GDP : US\$2,782억 (2019년)
- 1인당 GDP : US\$1,388 (2019년)
- 경제성장률 : 3.29% (2019년)
- 교역규모 (2020년)
 - 수출 : US\$19억 78백만
 - 수입 : US\$41억 34백만
- 한국의 對파키스탄 교역규모 (2020년)
 - 수출 : US\$8억 44백만
 - 수입 : US\$1억 94백만

(다) 경제상황

- 인구의 상당수가 절대 빈곤층인 저소득 국가임
- 농업이 발달하여 주로 면화, 우유, 밀, 사탕수수 등을 생산하며 이외에 섬유, 가죽 제조업이 발달함
- 섬유 가공품의 경우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주력 산업임
- 오랜 기간 만성적인 무역적자, 재정적자, 경상적자 등으로 심각한 외환 부족에 직면해 왔으며 2019년에는 13번째 IMF 구제 금융을 받음
- 2019년부터 IMF 구조개혁을 이행한 결과, 2020년 초까지는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감소하고 환율도 안정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정책으로 다시 경기가 급속히 침체됨
- 2020년 11월 기준 국가 봉쇄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 재개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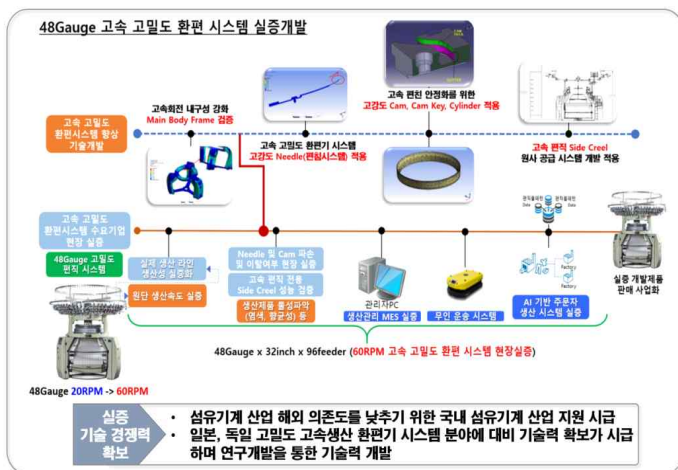
<출처 : KOTRA 파키스탄 카라치 무역관>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소식

■ 고속고밀도 지능형 무인시스템 기반 환편기 개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산업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20rpm으로 생산하던 48gauge 고밀도 환편기 시스템을 60rpm, 240kg 권취 및 무인이송 로봇을 이용한 환편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다. (주관기관 : 삼에스기계㈜ / 참여기관 : 케이앤엘 정보시스템, 부건니트, 창우섬유,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환편기의 생산물은 편물(니트)인데 주로 스포츠웨어, 이너웨어, 아웃웨어, 산업용 섬유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편물 생산량은 세계 7위이지만, 국내 환편기 제조업체는 2곳뿐이다.

본 연구의 핵심 기술은 「고속 편직이 가능하도록 주요 구동부 (메인 프레임, 실린더, 편침) 등의 최적설계 및 Ansys (구조해석) 개발», 「온라인 주문자 생산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주문자 생산시스템», 「환편기 구동 상태 및 부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고중량 편물 권취물 무인 이송이 가능한 AGV 로봇시스템 개발」이며, 본 기술개발로 편직기 제조 선진국인 독일, 일본과의 경쟁에서 시장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까지 개발될 48gauge, 60rpm 고속 환편 시스템은 수요기업에 35억원으로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적극 개척할 예정이다.



고속 환편기 기술개발 로드맵

<출처 : 복합재융합연구센터 이지훈 선임 연구원>

❖ 업계 소식

■ 한국재생활하이버협회 초대 회장, (주)월드로 조승형 대표
한국재생활하이버협회는 지난 7월 22일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으로 (주)월드로 조승형 대표를 선임하였다. 재생 하이버 업계는 지난 40년간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증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신임 조승형 회장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정식으로 설립 인가를 받게 되었으며, 협회 결성으로 업계의 공동 목표 달성과 이익 증진을 위해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탄소중립 생분해 섬유소재 산업협의회 출범

「탄소중립·친환경」을 핵심 키워드로 산업 전 분야에 걸친 변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7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탄소중립 생분해 섬유소재 산업협의회」가 창립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글로벌 친환경 패러다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섬유 및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으로 섬유소재 산업계에서는 처음이다. 창립식 대회사에서 안홍태 회장 (코레쉬텍 대표)은 「36개사로 출범하는 협의회는 정부정책과 소비자 요구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생분해 기초 소재의 개발 및 양산, 수급 안정화로 지속가능한 소재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회원사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 : 한국섬유경제>

